

## 경제적 양극화의 극복을 위한 판단 기준의 설정-연대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최경석 (남서울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 II.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황

### III. 연대성에 대한 이해

### IV. 기독교 가치판단 기준으로서 연대성

1. 독일 개신교에서 연대성 논의의 출발
2. 독일 개신교(Evangelische Kirchen in Deutschland:이하 EKD)  
백서에 나타난 연대성

### V. 한국 개신교에 주는 대안-개교회 중심에서 연대성의 중심으로

### VI. 나가는 말

\* 이 논문은 2014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14년 4월 26일 연세대학교 루스체플 원일한호에서 열린 2014년 한국기독교윤리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양극화 문제의 해소를 위한 가치판단 기준의 설정-연대성의 개념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 ABSTRACT •

---

The Criteria to Cope with the Economic Polarization  
- Focusing on the Concept of Solidarity

Choi, Kyung Suk

Polarization refers to the phenomenon which appears to disappear the middle class and to divide into upper and lower classes. Discussions about the polarization have been in progress in Korea since the late 1990s. The polarization of wealth has become more serious ow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neoliberal policies which primarily reduce the role of the state and actively expand the free market mechanisms. In order to cope with the challenges, the Korean government suggests an alternative of social integration.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criteria on ethical value judgement of Christian religion for the social integration which aims to tackle the social polarization. The criteria is "solidarity" which can be understood through the experiences of Christians and the general public.

In order to achieve this aim,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s of polarization of the labor market. The uses of the concept of "solidarity" are examined in terms of historical, sociological, philosophical and theological contexts. The use of the concept is examined, in particular, through the guidance books of churches in German. To love our neighbors as Jesus taught and actively bind together, our Christians need the faith in our life to be willing to donate our wealths to others, although it costs. Church is one of the small organizations to tackle the issue of economic polarization and to move forward to expand the welfare of the general public. The concept of solidarity is a key to do so.

**Key words:** solidarity, economic polarization, social cohesion, guidance books, churches in German,

---

## I. 들어가는 말

양극화란 한 사회 내에서 중간을 이루는 계층이 사라지고 상위층과 하위층으로 분리되고 분열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사회구조는 대다수의 중간층이 감소되어 상위층과 하위층으로 양분된다. 사회 구성원의 분포는 이른바 쌍봉형(bimodal)<sup>1)</sup>으로 이루어진다. 사실 양극화는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대부분 선진공업국가에서도 나타난다. 이미 지구화로 인한 경쟁의 심화와 기술 혁신으로 중국, 브라질 등의 후발공업국가들의 부상이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sup>2)</sup>

우리나라에서의 양극화에 대한 논의는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에 확산되어왔다.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국제 통화기금(IMF)의 조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세우는 것이었다. 게다가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일어났다. 이 과정 속에서 국가의 개입이 줄어들고 자유로운 시장의 논리가 작동되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경쟁력 있는 산업과 기업이 육성되었다. 이로써 수출주도형 기업과 내수주도형 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sup>3)</sup>

- 
- 1) 남춘호는 “일자리 양극화와 이동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에서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고용의 질 지수”를 도입하여 일자리의 분포도를 조사했다. 그는 “고용의 질 지수”를 결정하는 변수들로 임금과 고용의 안정성, 사회보험가입과 기업복지수혜를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중간층이 상위층과 하위층으로 점차 유입되어 일자리가 이른바 쌍봉형 형태를 띤다. 남춘호, 「일자리 양극화와 이동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5권 제1호, 2011, 54. 이와는 반대로 유항근은 “우리나라 소득분배 변화추이와 결정요인 분석”에서 양극화 지수(Wolfson index)와 지니계수를 비교하여 두 계수가 엇갈릴 경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난 20년 동안 두 계수가 평행하게 유지되어 소득에 있어서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유항근, 「우리나라 소득분배 변화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13권 제2호, 2011
  - 2) 금재호,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2011, 138.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양극화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년사를 계기로 한국사회의 핵심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후로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부들은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대안은 사회적 통합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도 국민행복시대를 국정목표로 제시하며 사회적 통합의 실현을 주요과제로 언급한 바 있다.<sup>4)</sup> 결국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들의 방법은 가장 큰 틀에서 생각할 때, 사회적 통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통합에 관심을 가지며 사회적 통합을 위한 기독교 윤리적 가치판단 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기준은 단순히 기독교적 “경험만이 아니라 일반인의 경험을 포괄하고 있는”<sup>5)</sup> 용어야 한다. 본 논문은 기독교적 경험과 일반인의 경험의 지평에서 이해될 수 있는 “연대성”을 사회적 통합을 위한 기준으로 설정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의 제2장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양극화 실태를 언급할 것이다. 제3장은 연대성의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역사적, 사회학적, 철학적 그리고 신학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통합의 기준으로 제시될 “연대성”의 개념을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반추할 것이다. 제4장은 기독교에서 연대성의 개념이 어떻게 통용되는지를 독일 신학의 입장에서, 특히 독일 개신교의 백서를 통해서 정리될 것이고 제5장은 연대성을 위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다.

3) 남춘호, 앞의 글, 30.

4) 제18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최종보고서를 참조하라.

5) Rich, A., *Wirtschaftsethik Bd. I, Grundlagen in theologischer Perspektive*, 강원돈, 『경제윤리 1』(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118.

## II.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격차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의 양극화 문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 문제는 이제 경제 분야를 넘어서 교육, 주거, 의료, 소비, 여가생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소득의 양극화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에서 기인한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의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압축적으로 성장하면서 고용과 분배가 선순환 구조로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의 위기가 구조적으로 지속되면서 일어났다.<sup>6)</sup>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다변화되면서 심화되고 있다.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고용율과 임금근로조건에서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고용형태의 양극화를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로 국한시키는 것은 과거형처럼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넘어 보다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형태는 노동시장의 종전의 관계가 직접고용제관계에서 간접고용관계로 또는 독립노무제공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단시간노동 등과 같은 직접고용의 예들과 파견노동, 호출노동, 사내하청, 시설관리나 용역 등과 같은 간접고용의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사용자가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넘어서 독립적인 노무관계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상태다. 또는 노동자 혹은 자영업자 사이가 모호해져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관계까지도 모호해짐으로써 법적인

6) 이호근, 「노동시장양극화와 사회통합방안-사회통합법-제도와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20집 제2호, 2013, 266.

지위와 여기에 따른 책임도 모호해지고 있다.<sup>7)</sup>

게다가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분야에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청을 주는 간접고용의 형태가 구조화되고 있다. 얼핏 보면 이런 간접고용의 형태는 상호 대등한 경제주체간의 계약관계처럼 보이나 사실, 하청기업은 원청기업의 입맛에 맞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

규모가 크고 종사자가 많은 대기업의 경우, 이른바 원청 - 하도급 - 재하도급 등의 다단계적인 고용형태가 구조화되고 있다. 특히 이런 구조는 우리나라의 주요산업인 자동차, 금속산업, 운송산업, 물류산업 그리고 각종 서비스산업 분야에 만연한 상태다. 문제는 이런 원하청관계에서 분규가 발생할 경우다. 이 경우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영역 속하는 근로관계인지 용역근로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발생하고 이는 현재까지 논쟁 중이다. 위장된 고용관계, 실제 법의 적용이 모호한 중간적 고용관계를 지도하고 감독할 관련행정의 부재와 부실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내에서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원인이기도 하다.

국내와 국외의 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직업구조도 변화되었다. 직업구조적 틀에서 판매직, 농림어업, 기능직 등이 감소되었으며, 전문직과 사무직, 그리고 단순노무직 등은 증가하였다.<sup>8)</sup> 또한 임금근로로부터 이탈한 노동자들은 주로 자영업을 선택한다. 그러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라 할지라도 자영업 종사자들의 소득은 임금노동자들에 비해 상승률이 저조

7) 이호근, 위의 글, 266-7.

8)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볼 때, 2000년에서 2008년까지의 기간 중에서 취업자 중에서 전문직, 기술직 그리고 관리직의 비중이 여성은 14.0%에서 20.2%로, 남성은 21.9%에서 24.0%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들의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격차는 개선되지 않았다. 이는 그만큼 단순 업무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개선되지 않음을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금재호, 앞의 글, 141-2에서 재인용.

했다. 이로써 자영업 종사자들은 2010년 전년대비 약 19만 명 정도로, 2011년 상반기에는 5만 명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sup>9)</sup> 이렇게 볼 때, 직업구조의 틀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성노동과 남성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자영업과 임금근로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형태는 정규고용보다는 비정규고용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sup>10)</sup> 2013년 3월 현재 통계청이 발표한 비정규직노동자의 규모현황을 보면, 2011년 비정규직노동자는 총 600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4%에 해당되며 2012년에는 33%로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대기업이나 공기업과 중소기업에서도 나타난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경우 기업복지 수준이 중소기업에 비해 현저히 높고 잘 발달되었으며, 대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정규직으로서 수준 높은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많다. 비정규직인 경우 대기업 자체에서도 기업복지마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는 더

9) 위의 글, 142에서 재인용.

10) 지난 2000년대 이래 우리나라의 임금노동자의 내역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8월 정규직고용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73.2%에서 2008년 8월 66.2%로 감소되었으나, 동년대 비정규직고용자는 26.8%에서 33.8%로 증가되었다. 임금노동자의 수를 비교해 본다면, 2001년 8월 임금노동자의 총합은 1354만명에서 2008년 8월 1610만명으로 증가했다. 정규직의 경우 2000년 8월 990만명에서 2008년 8월 1065만명으로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363만명에서 544만명으로 증가했다. 임금노동자의 총합을 고려할 때, 2000년 8월에서 2008년 8월까지 256만명이 증가했으며, 정규직은 75만명이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81만명이 증가했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증가수를 따지고 보면 정규직은 29.4%가 증가했으며 비정규직은 무려 70.6%가 증가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도, 이호근, 앞의 글, 268 참조.

욱 심화되어 청년고용의 문제, 여성노동의 문제, 저임금노동자의 문제, 이주노동자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대안으로 노동정책과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통합적 접근이 제시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대안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운운하며 사회통합에 노력하려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 특히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사회과학자들이 제시한 대안들은 여러 가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대안을 차치하고 큰 틀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이다. 특히 기독교 윤리적 시각에서 이 기준은 연대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 III. 연대성에 대한 이해

서구의 언어, 연대성(solidarity)은 라틴어 “solidus”를 그 어원으로 삼고 있고, “촘촘한”, “견고한”, “전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연대성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데 첫 번째는 약자들의 응집력이라는 의미다. 산업화 이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자본가의 권력에 대항하기 위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데 연대성의 개념이 사용되었다. 약자들의 응집력이란 의미에서 연대성은 사회적 정의와 연관되어있다.<sup>11)</sup> 연대성의 두 번째 의미는 특정한 단체가 목적을 이루려는 이해관계라고 볼 수 있다. 어떤 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거나 그 단체에 외부로부터

11) Bedford-Strohm, H., *Solidarität*, in: Honecker, M. (Hg.), *Evangelisches Soziallexikon*, (Stuttgart: 2001), 1419.



터의 위협이 올 경우 그 단체는 결속력이 강해진다. 낮은 사람들이거나 이주민들에 의해서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에, 연대성의 두 번째 의미에서 사회적 정의나 약자들에 대한 돌봄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sup>12)</sup>

사회과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대성의 개념을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는 연대성을 두 가지 형태로 구분했다. 첫째는 기계적 연대성(mechanical solidarity)으로 강한 집단규범에 의해서 사회적 결속이 나타난다. 이는 주로 전통사회의 특징으로 사회구성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작용을 한다. 둘째는 유기적 연대성(organic solidarity)이다. 이는 분업화된 근대 산업사회의 특징으로서 다양한 사람들이 상호연관성을 가지며 이루어진다.<sup>13)</sup> 뒤르켐은 다원화된 사회는 사회적 결속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지원한다고 말한다.

연대성의 개념은 철학에서 알래스테어 맥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공동체주의에서 자주 수용되고 있다. 이들은 인간을 자발적 존재로 보는 시각보다는 이야기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 인간은 이야기의 일부분으로서 그가 속한 공동체의 역사를 공유하고 공동체가 지향하는 미덕을 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인간이 이런 서사적 존재일 경우, 그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연대적 의무를 가진다.<sup>14)</sup>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은 공동체주의적 입장에서 정의를 설명하면서 정의는 미덕을 세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sup>15)</sup>

---

12) 위의 글, 1420.

13)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 (서울: 사회비평사) 1997, 120.

14) Sandel, M. J.,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이창신, 『정의란 무엇인가』, (과주: 김영사, 2010), 314.

15) 위의 책, 360.

연대성이란 단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성서구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연대성을 성서와 연관시켜 본다면, 이웃사랑의 현대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성서는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관심을 언급하고 있다.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섬김이듯이(마태복음 20장 28절)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또한 초대교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서로 나누고 공동식사에 참여함으로써 서로 밀접한 연대를 이루고 있다.(사도행전 2장 42-47)

연대성은 예수가 강조한 사랑의 계명과 관계가 있다. 사랑의 계명은 공동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 특징은 기독교 내부뿐만 아니라, 기독교 밖에서도 통용되는 이른바 보편적 계명이다. 연대성의 의미를 보다 확장시킨다면 인류의 연대성까지로 넓힐 수 있다.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성의 개념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에큐메니칼 운동은 즐기치게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up>16)</sup>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에서 연대성이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섬김이며, 사랑의 계명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랑은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 규범이다. 교회론적 측면에서, 교회는 모든 세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다하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교회의 임무는 인간들이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만들어낸 한시적인 질서들이 인간부합적인 것인지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감시하는 것이다.<sup>17)</sup> 인간이 경시되는 현상이 목도된다면, 교회는 이를 묵과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극복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타자를 위한 교회”<sup>18)</sup>의 입장이

16) Bedford-Strohm, H., 앞의 글, 1421.

17) 이런 입장에 대해서 Brakelmann, G. *Zur Arbeit geboren?*, 백용기, 『기독교 노동윤리』, (서울: 한들, 2004) 117을 참조하라.

18) 같은 쪽.

교회에 필요한 것이다. “타자를 위한 교회”의 입장에서 연대성의 개념은 도출될 수 있다.

지금까지 연대성의 개념에 대한 역사적, 사회학적, 철학적 그리고 신학적 입장들이 고찰되었다. 그럼 이 연대성의 개념이 기독교 신학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 신학에서 연대성의 개념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독일신학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은 유익한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독일신학이 적극 활용하는 연대성의 개념을 우리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재해석할 수 있고 또는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 IV. 기독교 가치판단 기준으로서 연대성

연대성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의 계명이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할 때, 우리나라의 개신교는 이런 연대성을 논의하는 것에 인색해 보인다. 이인경은 오히려 연대성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연민과 애도”의 윤리적 가치를 주목한다. 그는 타인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애도하면서 타인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강조한다. 즉 연민과 애도를 통해서 타자를 생각하는 타자의 윤리학이 가능하여 새로운 다른 연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sup>19)</sup> 그러나 이인경이 제시한 연민과 애도의 타자의 윤리학은 개인윤리적 측면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김현수는 연민의 개념을 이런 타자의 윤리학의 관점에서 개인윤리를 넘어서 “사회윤리의 가능성”<sup>20)</sup>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 첫째, 타자의

19) 이인경, 「연민과 애도의 윤리」, 『한국기독교학회, 제39차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10, 109-111을 참조하라.

20) 김현수, 「연민의 사회윤리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학』 제24집, 2012, 93.

고통에 반응하는 것이 연민이고 연민의 시작은 “타자의 고통에 들어가고 치유하기 위해서 타자를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그가 불쌍한 타인에게 보여준 불쌍히 여기는 감정(연민)에서 연민의 윤리가 기초된다. 셋째, 연민의 대상은 사회에서 고통당하는 타자를 의미하기에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관점에서 ... 연민의 윤리는 정의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sup>21)</sup> 김현수가 제시한 연민의 윤리의 사회윤리적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연민의 개념보다는 오늘날의 용법에 맞는 연대성을 논하는 것이 훨씬 이해를 돕기 쉽다고 판단된다.

안계정은 개혁주의의 생명신학의 틀에서 한국사회의 양극화 문제의 해소방안을 모색한다. 그는 생명신학을 “사회를 생명이 있는 유기체”<sup>22)</sup>로 보고 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 한 명이 아프면 그 아픔을 같이 느낀다. 안계정은 양극화 현상을 아픔의 하나로 바라보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생명신학의 근본틀을 “실천운동”, “살림운동” 그리고 “나눔운동”으로 구분한다. 생명을 살리는 “실천운동”이 강조된 후, 본격적으로 “살림운동”이 일어나고 살림의 구체적이고 궁극적인 “나눔운동”이 전개됨으로써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이 제시된다.<sup>23)</sup> 주목할 만한 것은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연대성”의 개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계정은 연대성이 확장된 것으로 사회보험의 강화를 주장한다.<sup>24)</sup>

우리나라 개신교에 비해 독일 개신교에서 연대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 신학은 앞으로 우리나라 개신교

21) 모든 인용은 위의 글, 117-119.

22) 안계정, 「한국사회의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학』 제29집, 2014, 304.

23) 위의 글, 304-306.

24) 위의 글, 311.

의 연대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은 기독교 정신이 사회전반에 뿌리내려서 정책으로 펼쳐지는 국가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sup>25)</sup> 이 논문에서는 연대성의 개념이 독일신학 특히 독일 개신교에서 어떻게 발달되었는지 그리고 연대성의 개념이 어느 곳에 사용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독일 개신교에서 연대성의 개념의 형성과정을 역사적 측면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 이후 독일 개신교에서 발행하는 책들(Denkschriften)에서 논의된 연대성이 어느 영역에서 사용되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연대성의 개념이 독일 개신교 내부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것을 추적하다보면 우리나라의 개신교도 연대성의 개념을 윤리적 가치판단 기준으로 수용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연대성의 개념이 기독교적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설정될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한다.

### 1. 독일 개신교에서 연대성 논의의 출발

독일에서 연대성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일어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독일 개신교는 1945년 이후에서야 비로소 처음 연대성을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물론 1945년 이전 연대성의 개념보다는 사회(Gesellschaft)와 공동체(Gemeinschaft)의 차이가 논의되었다. 연대성의 개념은 공동체의 개념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공동체와 연관된 연대성을 공동체 개념의 기본적 의미로 파악한 독일의 신학자는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 “성도의 교제(Sanctorum communio)”에서 그 의미가 분명히 나온다.

25) 독일의 기독교 정신, 특히 개신교 정신이 사회정책으로 수립되는 과정을 정리한 책으로 Jähnichen, T., *Wirtschaftsethik: Konstellationen - Verantwortungsebenen - Forschungsfelder*. (Stuttgart: 2008)을 참조하라.

본회퍼는 창조신학적인 근거에서 출발해서 공동체를 “의지의 공동체 (Willengemeinschaft)”<sup>26)</sup>로 이해한다. 의지의 공동체는 의지를 일치시키고 동일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의지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단순히 모임을 위해 공적으로 모이는 형식적인 공동체가 될 수 없다. 구성원들이 상호간의 영향을 주고 공동의 의지에 따라 의견이 대립될 경우 합의를 보면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의지의 공동체다.<sup>27)</sup>

나치의 주도 하에서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 개신교는 스투트가르트(Stuttgart)에 모여서 이른바 그 동안의 죄를 고백한다. 이것이 이른바 “스투트가르트 죄의 고백(Stuttgart Schuldbekennntniss)”이다. 이 고백문에서 “연대성”이 등장한다. 다음은 스투트가르트 죄의 고백문의 일부다.

“우리가 우리 국민들과 더불어 커다란 아픔을 많은 공동체에게 남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연대성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만이 우리는 이 모임(에큐메니칼에서 모임)에 대해서 보다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sup>28)</sup>

이 고백문에서 공동체의 아픔과 죄의 연대성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다. 공동체의 아픔이 당시 상황 속에서 나타난 결과라면, 죄의 연대성은 공동의 책임을 의미한다. 물론 나치 시대 독일의 일부 개신교가 나치에 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국민의 죄이며, 독일 개신교의 죄이기에 독일 개신교는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진 것이다. 연대성의 개념은 독일 개신교에

26) Bonhoeffer, Dietrich, *Sanctorum communio. Eine dogmatische Untersuchung zur Soziologie der Kirche*, hg. v. Joachim von Soosten, (München: 1986), 51.

27) 위의 책, 55.

28) *Die Stuttgarter Schuldklärung*, in: Kirchliches Jahrbuch 1945-1948, hg. v. Joachim Beckmann, (Gütersloh: 1950), 26.

서 공동체가 깊어지는 짐에서 비롯된다. 이런 의미에서 연대성은 독일 개신교가 깊어지고 그들이 갇아야하는 빛과 같다. 독일 개신교에서 연대성의 개념은 죄를 같이 짊어지는 연유에서 출발한다.

1970년대 독일 개신교는 노동운동에서 연대성의 개념을 수용한다. 귄터 브라켈만(Günter Brakelmann)은 기독교 윤리와 1970년대 사회복지국가의 정책적 차원에서 상호 연결고리를 찾고자 기독교인의 믿음을 근거로 정치적 기준들을 규정한다.<sup>29)</sup> 브라켈만의 목적은 연대적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삶의 기회가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한 사회적 불평등은 “국가정책의 결과에 대한 도전이고 스캔들”<sup>30)</sup>이다. 브라켈만은 사회적 불평등과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사회적 연대성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브라켈만이 이해한 연대성은 타인의 이쁨을 이해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이른바 전통적인 연대성과는 다르다. 그는 “총체적 연대성(Gesamtsolidarität)”<sup>31)</sup>을 새로운 연대성으로 제시한다. 총체적 연대성은 기득권의 특권을 극복하고 사회적 계급을 극복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총체적 연대성은 법치국가의 형태가 점진적으로 발전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은 “연대성이 보편화”<sup>32)</sup>되어야 한다. 브라켈만은 연대성을 성서에서의 이웃사랑의 계명과 연결시킨다. 그에 따르면 “연대성은 실천적인 이웃사랑이며 삶의 양식”<sup>33)</sup>이 될 수 있다. 그는 연대성을 지금까지의 특권과 계급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사회의 덕목으로 제시한다.

요약하자면, 독일 개신교에서 연대성의 개념은 1945년과 1970년대 사

---

29) 브라켈만은 이런 내용을 Brakelmann, G., *Vom Unverbindlichen. Gedanken eines Christen zum demokratischen Sozialismus*, (Gütersloh: 1976)에서 기술하고 있다.

30) 위의 책, 93.

31) 위의 책, 94.

32) 위의 책, 96.

33) 같은 쪽.

이에서 나타났으며, 독일 개신교 사회윤리의 틀에서 중요한 주제들 중 하나다. 물론 1945년 이전의 공동체의 개념도 연대성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연대성의 개념의 선이해로 볼 수 있다. 1945년 죄에 대한 연대성은 특정한 당사자에 대한 전체가 깊어져야 할 연대성이라면, 브라켈만이 제시한 총체적 연대성은 불평등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보편적 윤리적 규범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 2. 독일 개신교(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이하 EKD)

### 백서에 나타난 연대성

“연대성”의 개념은 EKD가 발행한 백서들 중에서 1970년 “사회 문제들에 대한 교회의 표현들에 대한 임무와 한계들(Aufgaben und Grenzen kirchlicher Äußerungen zu gesellschaftlichen Fragen)”에서 처음 나타난다. 이 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연대성의 출발점은 교회의 견고성은 사회의 견고성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백서는 연대성의 개념을 통해서 교회가 사회의 어려운 점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교회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위로의 말과 요구의 말을 함으로써 세상과 함께 견고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연대성이 필요하다.<sup>34)</sup>

1970년대 EKD가 구상한 정치 백서는 연대성을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것으로 사용한다.<sup>35)</sup> 당시 선진공업국과와 개발도상국가 사이의 심각한 불평등 때문에 EKD가 발행한 백서에서 연대성은 협소한 느낌이나 당파

34) Rat der EKD (Hg.), *Aufgaben und Grenzen kirchlicher Äußerungen zu gesellschaftlichen Fragen*. Eine Denkschrift der Kammer für soziale Ordnung der EKD (1970), in: Die Denkschriften der EKD. Bd. I/1: Frieden, Versöhnung und Menschenrechte (1978), 49 참조.

35) Rat der EKD (Hg.), *Der Entwicklungsdienst der Kirche*. Ein Beitrag für Frieden und Gerechtigkeit in der Welt. Eine Denkschrift, in: Die Denkschriften der EKD. Bd. I/1, 148.



적인 것을 넘어서 분열되지 않는 점을 강조한다.<sup>36)</sup> 확장된 연대성의 개념 변화를 수용하면서 1978년의 EKD 백서 “그리스도인들의 평화봉사(Der Friedendienst der Christen)”는 민족국가적인 권위적 사상을 대신해서 초국적인 즉 세계적인 연대성을 제시한다.<sup>37)</sup> 이런 관점에서 교회의 행동의 목표는 우선적으로 남반구의 개발도상국가들의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이다.

1973년의 백서 “산업사회시대에서 사회적 안전망(Soziale Sicherung im Industriezeitalter)”에서는 총체적 연대성의 의미에서 연대성의 개념이 해석된다. 총체적 연대성의 전제조건은 사회적 안정이 보장되고 동시에 국민들로부터 사회복지 국가가 유지되도록 국민들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물론 국가가 국민들에게 끼칠 커다란 삶의 위협요소를 안전하게 하며, 국민들은 스스로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면서 삶의 안전을 지키면서 사회 전체가 연대성을 유지한다.<sup>38)</sup>

총체적 연대성과 유사한 강조점은 1992년의 백서 “공공복리와 사적 이익(Gemeinwohl und Eigennutz)”에서도 볼 수 있다.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의 선행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회는 가난한 자들의 권리보호를 부정하는 것”<sup>39)</sup>이다. “사회의 연대성은 최저생계비의 확실한 담보 위에서 실현”<sup>40)</sup>되어야 한다. 약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지를 요구할 때, 연대성은 이들의 정당한 요구들에 대한 근거가

---

36) Rat der EKD (Hg.), *Soziale Gerechtigkeit und internationale Wirtschaftsordnung*. Vorgelegt von der Gemeinsamen Konferenz der Kirchen für Entwicklungsfragen, in: Die Denkschriften der EKD. Bd. I/1, 197.

37) Rat der EKD (Hg.), *Der Friedendienst der Christen*, in: Die Denkschriften der EKD. Bd. I/2: Frieden, Menschenrechte, Weltverantwortung (1978), 42와 52.

38) Rat der EKD (Hg.), *Soziale Sicherung im Industriezeitalter*. Eine Denkschrift der Kammer für soziale Ordnung der EKD (1973), 18.

39) Rat der EKD (Hg.), *Gemeinwohl und Eigennutz*. Eine Denkschrift des Rates der EKD (1992), 93.

40) 위의 책, 94.

된다.

1978년의 백서 “업적과 경쟁(Leistung und Wettbewerb)”은 연대성을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포괄하는 “이웃들에 대한 연대성(mitmenschliche Solidarität)”<sup>41)</sup>으로 이해하고 소외된 계층을 돌보는 연대공동체를 그 목표로 삼는다.

1982년의 백서 “노동자와 실업자들을 위한 연대공동체(Solidargemeinschaft von Arbeitenden und Arbeitslosen)”는 연대성을 제목으로 삼는다. 특히 이 백서는 “실업자들과 사회적 연대”<sup>42)</sup>를 고려한다. 연대성은 노동하는 사람들이 실업자들을 위해서 행동해야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사용자들의 측면에서 연대성은 노동시간의 단축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 장기실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연대성도 요구한다. 1980년대에 들어서 도시가 발달되면서 소외된 자들, 노동자와 실업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성이 강조된다.<sup>43)</sup>

1994년에는 백서 “성년과 건강(Mündigkeit und Gesundheit)”<sup>44)</sup>은 건강과 의료분야에서 연대성을 요구한다. 일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사회가 인식하고 그들에 대한 책임의 일환으로써 의료행위에서 혜택을 받

41) Rat der EKD (Hg.), *Leistung und Wettbewerb. Sozialethische Überlegungen zur Frage des Leistungsprinzips und der Wettbewerbsgesellschaft*. Eine Denkschrift der Kammer der EKD für soziale Ordnung (1978), in: Denkschriften der EKD, Bd. II/2: Soziale Ordnung, Wirtschaft, Staat (1993), 169.

42) Rat der EKD (Hg.), *Solidargemeinschaft von Arbeitenden und Arbeitslosen. Sozialethische Probleme der Arbeitslosigkeit*. Eine Studie der Kammer der EKD für soziale Ordnung (1982), in: Denkschriften der EKD, Bd. II/2: Soziale Ordnung, Wirtschaft, Staat (1993), 58.

43) 대표적인 백서로서 Rat der EKD (Hg.), *Menschengerechte Stadt. Aufforderung zur humanen und ökologische Stadterneuerung* (1984), in: Denkschriften der EKD, Bd. II/3.

44) Rat der EKD (Hg.), *Mündigkeit und Gesundheit. Sozialethische Kriterien für Umstrukturierungen im Gesundheitswesen*. Eine Studie der Kammer der EKD für soziale Ordnung (1994).

을 수 있도록 연대적 보험이 필요하다.

독일 개신교는 사회와 경제적 부문에서 연대성의 개념을 발전시켜왔다. 독일 개신교와 더불어 독일 가톨릭도 연대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연대성과 정의가 기본 척도가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정치를 창출하기 위해서”<sup>45)</sup> 이 둘은 “연대성과 정의 속에서 미래를 위함(Für eine Zukunft in Solidarität und Gerechtigkeit)”이라는 보고서 작성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여기에서 연대성은 우선 사회의 약자들, 특히 실업자들의 운명에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문서에서 연대성은 전통적으로 가톨릭의 상보성(Subsidiarität)의 원칙과 유사하다. 연대성과 상보성은 공정한 사회에서 서로 보충적인 원칙들로 불려진다. 연대성은 단순히 친분이 있는 사람들 사이의 연대성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웃들과의 연대성”<sup>46)</sup> 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게다가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각인되어야 한다.

2006년의 백서 “공정한 분배(Gerechte Teilhabe)”<sup>47)</sup>는 인간은 홀로 스스로 자신을 책임질 능력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연대성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누구나 이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서 공정한 분배의 가능성을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연대성의 강화와 가난을 피할 교육의 장을 확대하는 것이다.<sup>48)</sup> 왜냐하면 “사회에서 그들의 몫이 보장받는 사람들만이 사회를 민주적인 방법과 연대적인 방법과 지속적인 방법

---

45) EKD/DBK (Hg.), *Für eine Zukunft in Solidarität und Gerechtigkeit*. Wort des Rates der EKD und der DBK zur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Frage in Deutschland, Gemeinsame Texte Nr. 9 (1997), 8.

46) 위의 글, 47.

47) Rat der EKD (Hg.), *Gerechte Teilhabe. Befähigung zu Eigenverantwortung und Solidarität*. Eine Denkschrift des Rates der EKD zur Armut in Deutschland (2006)

48) 위의 책, 10.

으로 발전하고 형성”<sup>49)</sup>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연대성의 개념이 독일 개신교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1945년 죄의 고백으로서 연대성은 1970년대에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총체적 연대성으로 이해되었다. 1945년 이전 연대성의 개념은 공동체의 개념으로 이해하며 보다 포괄적으로 사용되었다. 독일 개신교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가치 규범으로 연대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연대성이 기독교적 용어이면서 동시에 일반적 용어라는 것이 우리나라 개신교에서도 수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양극화 문제의 해소를 위해 기치로 내세운 “사회통합”을 주목한다면, 연대성은 양극화 문제의 해결방안을 위한 하나의 가치판단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다.

## V. 한국 개신교에 주는 대안-개교회 중심에서 연대성의 중심으로

오늘날의 연대성과 연결된 기독교 사회윤리적 숙고를 위해서 성서의 증언들이 필요하다. 구약의 법전들은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법전들은 가난한 자 특히, 고아, 과부, 나그네 그리고 레위인 등 사회적 약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속되도록 부자들로 하여금 배려하도록 명령하고 있다.<sup>50)</sup>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구성원들은 나그네와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의 역사적 경험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구약의 법전들을 오늘날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들의 시각으로 해석한다면 양극화로 인해 소외된 사회적 약

49) 위의 책, 11.

50) 이사야, 「구약의 사회적 약자와 법전의 사회윤리」,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 사회윤리』제18집, 2009, 283.

자들과 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약, 특히 바울서신은 삶의 곤경 속에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상호간 협조할 것을 말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의 삶의 실천원리는 서로의 짐을 서로 지는 것이고 이럴 때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이다.<sup>51)</sup> 이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 강한 자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의 편에서 그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증거해야 한다.<sup>52)</sup> 성서는 교회의 책임이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이 최소한의 삶을 살도록 유지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교회론적 측면에서 본회퍼의 “의지의 공동체”와 브라켈만의 “총체적 연대성”이 만나면서 교회는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묵인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브라켈만의 “총체적 연대성”은 “타자를 위한 교회”의 정신이 확장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타자의 아픔을 묵인하지 않고 그들과 연대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다. 교회는 양극화 현상으로 고통당하는 당사자들에게 기쁜 소식으로써 복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도록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다.<sup>53)</sup>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통합의 성공과 실패는 정부의 노력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 전문 인력들, 특히 사회과학자들은 저마다 경제정책의 방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들, 사회통합의 방안 등을 모색하거나 제시하고 있다. 신학은 또는 교회는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소득의 양극화 또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개선하고 해결하는 자체가 어렵다. 사회적 통합의 주체는 정부이며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다. 신학은 또는 교회는 시민사회와 더불어 정부에 정책입안을 위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권한 속에서 움직일 수 있다거나<sup>54)</sup> 정책이 기독

51)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52) 이와 같은 주장을 위해서 Brakelmann, G., 앞의 책, 151.

53) 브라켈만, 앞의 책, 119.

교적 관점에서 수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제시한 것은 사회적 통합이다.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정책이 설립되어야 하고 신학과 교회는 이런 정책입안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신학과 교회는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될 경우, 그 방법들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수용 가능한지를 검토할 수 있다. 스위스의 기독교 사회윤리학자 아르투르 리히(Arthur Rich)의 방법론을 빌려서 말한다면, 사회적 통합은 일종의 “인간부합적인 기준”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은 “준칙들”로 이해될 수 있다.<sup>54)</sup>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윤리적 판단 기준은 일반 사람들에게 익숙한 용어로서 연대성이다. 그러나 이 연대성은 단지 일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용어가 아니라 기독교적 용어이기도 하다.

성서적, 교회론적,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연대성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윤리적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연대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 그것은 증세정책이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깝지만 연대성의 원칙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세금의 부담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sup>55)</sup>

이웃사랑의 확장을 연대성으로 해석할 때, 이웃사랑의 실천은 연대성이 확장되는 실천이다. 이웃의 범위는 단순히 내 주위의 이웃에만 국한시

54) 여기에 대해서는 이혁배,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본 소득양극화」, 『신학사상』 제142호, 2008, 237을 참조하라

55) 리히의 사회윤리 방법론을 위해서는 조용훈, 「아르투어 리히의 사회윤리 방법론」, 임성빈 외, 『현대 기독교윤리학의 동향 1』, (서울: 에영커뮤니케이션, 1997), 221-257, 그리고 최경석, 「에큐메니칼 경제윤리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19집, 2010. 209-213을 참조하라.

56) 이와 유사한 주장으로 Brakelman, G., 앞의 책, 152을 참조하라.

킬 수 없는 “총체적 이웃”이다. 즉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이며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낸 세금이 사용되고 그 이웃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세금이 사용된다면 이웃사랑의 실천은 용이해진다. 세금이 양극화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사용되고 그들이 일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증세정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의 가장 쉬운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약간의 비용은 들어가지만 보다 더 많은 연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조금 더 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한국 개신교는 교단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더라도 연대를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가들에게 연대를 통한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sup>57)</sup>

## VI. 나가는 말

한국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의 문제는 사회, 경제학적 측면에서만 연구될 수는 없다.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논의도 포함되어야 한다. 기독교적 용어이면서 일반인에게도 통용될 수 있는 연대성의 개념은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신학적으로 방향을 설정할 때 중요한 핵심의 개념으로 규정될 수 있다.

연대성의 개념이 잘 발달되어 있는 독일신학은 사회적 약자, 실업, 의료, 교육의 문제 등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면서 연대성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독일신학은 백서 발간을 통해서 연대성과 관련된 언명들을 독일교회에게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독일신학의 목소리에 한국 개신교는 귀

57) 이와 유사한 주장으로 위의 책, 153을 참조하라.

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는 연대성을 강조하면서 연대성을 약화시키는 것에 대항하도록 알려야 한다. 그렇다고 교회가 양극화 문제의 중재자가 되라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통해 만인의 복지로 향해야 하는 작은 기구 중의 하나다. 그리고 양극화 문제의 해결과 만인의 복지는 연대성의 개념 속에서 그 방향성을 잡을 수 있고 교회는 연대성의 개념을 우리나라의 사정 속에서 기독교적으로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금재호,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13권, 2011
- 김현수, 『연민의 사회윤리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학』 제24집, 2012
- 남춘호, 『일자리 양극화와 이동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5권 제1호, 2011
- 유향근, 『우리나라 소득분배 변화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13권, 2011
- 안계정, 『한국사회의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학』 제29집, 2014
- 이샤야, 『구약의 사회적 약자와 법전의 사회윤리』,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18집, 2009
-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 서울: 사회비평사, 1997
- 이인경, 『연민과 애도의 윤리』, 『한국기독교학회』, 제39차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10
- 이혁배,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본 소득양극화』, 『신학사상』 제142호, 2008
- 이호근, 『노동시장양극화와 사회통합방안-사회통합법·제도와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20집 제2호, 2013
- 조용훈, 『아르투어 리히의 사회윤리 방법론』, 임성빈 외, 『현대 기독교윤리학의 동향 1』, 서울: 애영커뮤니케이션, 1997
- 최경석, 『에큐메니칼 경제윤리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19집, 2010.
- Beckmann, J., (Hg.), *Die Stuttgarter Schuldklärung*, in: *Kirchliches Jahrbuch 1945-1948*, (Gütersloh: 1950),
- Bedford-Strohm, H., *Solidarität*, in: Honecker, M. (Hg.), *Evangelisches Soziallexikon*, (Stuttgart: 2001), 1419.
- Bonhoeffer, Dietrich, *Sanctorum communio. Eine dogmatische Untersuchung zur Soziologie der Kirche*, hg. v. Joachim von Soosten, (München: 1986)

- Brakelmann, G., *Abschied vom Unverbindlichen. Gedanken eines Christen zum demokratischen Sozialismus*, (Gütersloh: 1976)
- Brakelmann, G., Zur Arbeit geboren?, 백용기, 『기독교 노동윤리』, 서울: 한들, 2004
- Jähnichen, T., *Wirtschaftsethik: Konstellationen - Verantwortungsebenen - Herausforderungsfelder*. (Stuttgart: 2008)
- Rich, A., *Wirtschaftsethik Bd. I, Grundlagen in theologischer Perspektive*, 강원돈, 『경제윤리 1』,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 Sandel, M. J.,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이창신, 『정의란 무엇인가』, 파주: 김영사, 2010

#### 독일개신교 백서-시대순

- Rat der EKD (Hg.), *Aufgaben und Grenzen kirchlicher Äußerungen zu gesellschaftlichen Fragen*. Eine Denkschrift der Kammer für soziale Ordnung der EKD (1970)
- Rat der EKD (Hg.), *Soziale Sicherung im Industriezeitalter*. Eine Denkschrift der Kammer für soziale Ordnung der EKD (1973)
- Rat der EKD (Hg.), *Der Entwicklungsdienst der Kirche. Ein Beitrag für Frieden und Gerechtigkeit in der Welt*. Eine Denkschrift (1978)
- Rat der EKD (Hg.), *Soziale Gerechtigkeit und internationale Wirtschaftsordnung*. Vorgelegt von der Gemeinsamen Konferenz der Kirchen für Entwicklungsfragen (1978)
- Rat der EKD (Hg.), *Der Friedendienst der Christen*, (1978)
- Rat der EKD (Hg.), *Leistung und Wettbewerb. Sozialethische Überlegungen zur Frage des Leistungsprinzips und der Wettbewerbsgesellschaft*. Eine Denkschrift der Kammer der EKD für soziale Ordnung (1978)
- Rat der EKD (Hg.), *Solidargemeinschaft von Arbeitenden und Arbeitslosen. Sozialethische Probleme der Arbeitslosigkeit*. Eine Studie der Kammer der EKD für soziale Ordnung (1982)
- Rat der EKD (Hg.), *Menschengerechte Stadt. Aufforderung zur humanen und ökologische Stadterneuerung* (1984)
- Rat der EKD (Hg.), *Gemeinwohl und Eigennutz*. Eine Denkschrift des Rates der

EKD (1992)

Rat der EKD (Hg.), *Mündigkeit und Gesundheit. Sozialethische Kriterien für Umstrukturierungen im Gesundheitswesen*. Eine Studie der Kammer der EKD für soziale Ordnung (1994).

EKD/DBK (Hg.), *Für eine Zukunft in Solidarität und Gerechtigkeit*. Wort des Rates der EKD und der DBK zur wirtschaftlichen und soziale Frage in Deutschland, Gemeinsame Texte Nr. 9 (1997)

Rat der EKD (Hg.), *Gerechte Teilhabe. Befähigung zu Eigenverantwortung und Solidarität*. Eine Denkschrift des Rates der EKD zur Armut in Deutschland (2006)

논문투고일: 2014. 10. 30.

심사개시일: 2014. 11. 14.

게재확정일: 2014. 12. 06.

---

• 국 문 초 록 •

---

양극화란 한 사회 내에서 중간을 이루는 계층이 사라지고 상위층과 하위층으로 분리되고 분열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양극화에 대한 논의는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에 확산되어왔다. 정부는 양극화의 극복을 위해서 사회적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통합을 위한 기독교 윤리적 가치판단 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 기준은 기독교적 경험과 일반인의 경험의 지평에서 이해될 수 있는 “연대성”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양극화, 특히 노동시장의 양극화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통합의 기준으로 제시될 “연대성”의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역사적, 사회학적, 철학적 그리고 신학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기독교에서 연대성의 개념이 어떻게 통용되는지를 독일 신학의 입장에서 특히 독일 개신교의 백서를 통해서 정리할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인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약간의 비용은 들어가지만 보다 더 많은 연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조금 더 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교회는 경제적 양극화 문제의 극복을 통해 만인의 복지로 향해야 하는 작은 기구 중의 하나다. 경제적 양극화 문제의 극복과 만인의 복지는 연대성의 개념 속에서 그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

**주제어:** 연대성, 경제적 양극화, 사회적 통합, 백서, 독일 개신교

---